제 5 차 ISKSE 環境分科 基調演說

# 都市와 環境

弘益大學校 理工大 學長 朴 炳 柱

1

都市는 人間이 만들었다. 市民은 스스로의 生活을 防衛하기 爲해 必要한 最小限의 措置를 取해왔다.

人間社會의 變化에 따라 都市空間環境秩序를 確立하기 爲한 手法에도 많은 變遷이 거듭되었다. 交通과 通信이 發達하기 以前의 工場은 都市 속에 住宅과 混在하여 立地하는 것을 當然하게 받아들였고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煙氣가 하늘을 덮는 狀態를 工業化 또는 近代化의 象徵으로서 그리고 이런 現象들은 都市發展의 必要惡으로서 甘受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의 市民은 큰 굴뚝에서 시커먼 煤煙이 나오는 모습을 결코 흥겨웁게 보지는 않으며 工業生産에 있어 어쩔수 없는 副作用이라고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過去의 어린이들이 그리던 工場風景과 요즘 어린이들이 그리는 工場風景의 對照는 우리나라 工場周邊의 環境變化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工場은 灰色의 色調위에 시커먼 煙氣가 큰 굴뚝에서 나오는 이메지를 表現하면 되었지만 現代工場의 이메지는 工場周邊에 造景施設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굴뚝은 있으되 시커먼 煙氣는 나오지 않아야 近代的 施設을 갖춘 훌륭한 工場의 모습으로서 表現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도 알고 있으며 시커먼 연기가 나는 工場은 文化生活에 阻害가 되는 公害가 發生되는 工場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달 7月 1日을 期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論議가 많았던 環境保全法이 發効되었다. 이로써 工場 및 公害發生源에서 지켜야 할 限界가 明示되었으며, 이 法과 建築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都市計劃法 및 關聯法 등에 따라 都市와 環境을 둘러싼 諸般市民生活의 環境施設整備를 本格化할 契機가 마련되었음을 기뻐한다.

2

서울을 위시한 大都市地域의 環境惡化는 한마디로 産業施設과 人口가 過度하게 密集하여 있기 때문이고 이로 因하여 더욱 많은 被害를 發生시키고 있다. 좁은 地域에 많은 人口가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過密居住, 住宅難, 住宅地의 遠隔化에 의한 遠距離通勤과 混雜한 通勤苦痛, 住宅地가 郊外의 田畓이나 綠地위에 여기저기 띄엄띄엄 늘어나는 現象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公共施設, 職住近接의 便利性이 지나쳐 工場과 住宅이 混在한 나머지 公害工場에서 나오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騷音, 惡臭, 固型廢棄物 等 環境汚染의 問題, 自然喪失에 따른 氣溫의 上昇, 酷署化, 洪水로 因한 河川氾濫 등은 過密都市에서는 더욱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고 있다.

人間社會의 變遷에서 外敵에 의해 많은 人命被害를 입어 왔다고는 하지만 自然的 自壞作用이나 各種 疾病에 依한 死亡率이 壓倒的이라는 事實을 여기서 想起할 必要가 있다,

우리는 自己의 健康管理를 돌볼 틈도 없이 일에만 熱中하여 어느새 自己身體가 여러모로 금이 가기 始作한 것을 알고는 당황한다. 이런 비유를 우리의 國土나 都市環境에다 결부시켜본다

우리는 經濟成長에만 沒頭하였으며 70年代 中半期 까지는 國土의 健康管理는 소홀했기 때문

에 現在의 國土는 많은 部分에 脆弱한 環境이 露出되고 있다. 都市環境의 惡化 工業團地 周邊의 環境汚染 等은 이의 單的인 例이다.

우리나라도 여기 數年前부터 國土自然環境의 保全과 人間性의 回復을 위한 福祉事業에 많은 힘을 기울이기 始作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앞서 70年代初부터 都市計劃에서 土地利用의 規制를 위해 用途地域制의 淳化와 綠地의 確保를 重視하였으며 近年에는 都市計劃關聯法의 整備로 國土計劃, 都市計劃, 工業用地開發, 都市開發의 質的 向上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바 이와 같은 人間性의 回復 乃至 福祉優先政策이 大幅的으로 實施되는 데는 많은 隘路點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複雜하고 大規模的으로 惡化된 生活環境을 改善하는 데는 엄청난 時間과 費用, 그리고 効果的인 計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今年봄부터 展開된 精神, 行動, 環境秩序運動中의 環境秩序로서의 自然保護「캠페인」은 많은 成果가 있는 것 같다. 植樹를 해야하고, 植樹한 것은 잘 保護해야 할 것이며, 溪谷이나 河川, 綠地, 名勝地 등 사람들이 餘暇利用을 즐기는 곳에는 깨끗한 環境을 維持하자는 것이다.

우리 國土를 三千里錦繡江山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首都서울의 自然條件보다 더 아름다운 景觀을 갖춘 大都市를 筆者는 찾아 보지를 못하였다. 아테네, 로마, 파리, 런던, 베르린, 뉴델리, 워싱턴, 뉴욕, 동경, 리오데쟈네이로, 시드니 그밖에 어느 都市든 우리의 서울보다 自然的 基盤이 아름다운 큰 都市는 없었다는 것을 比較檢討를 通해 確認하였다.

이 事實을 나는 즐겨 强調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말에 對한 反應은 그저 갸우뚱만 하는 눈치에 不滿이 있다. 이러한 世界的인 比較에는 自然의 바탕과 人工的 都市施設을 따로 評價하여야 한다. 自然은 不滅의 것으로서 評點을 높혀야 하고 歷史性은 다음級의 評點으로 낮추어야하며 一般的인 人工施設은 評點에 考慮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自然景觀의 바탕위에 아름다운 人工的 造形의 景觀을 形成한다면 어떠한 觀察者들도 그 都市를 높히 評價할 것이다.

世界에서 자랑하는 三千里錦繡江山을 祖上으로 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이 國土를 더욱 所重하게 가꾸어서 國民이 健全하게 生活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樹立하려는 國土計劃은 물론 各都市計劃은 基本方向이나 計劃指針에 지나친 自然破壞의 結果를 警戒할 必要가 있다. 우리가 다루려는 土地利用計劃에서 自然環境을 保全하는 方向이 再確認되어야 하고 環境을 汚染시키는 發生要因들을 豫想함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環境保全法이 바라는 人間의 健康을 保護하고, 또한 生活環境을 保全하는 데 있어 維持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基準, 即 環境基準의 設定에는 關聯專門家의 많은 參與와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都市環境에 對한 一般市民의 關心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等閑하였는데 요즘은 市民의 都市施設에 對한 關心度가 急激히 높아졌다. 自身의 健康管理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自己의 住居環境을 再檢討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三千里錦繡江山을 健康한 모습으로 回復시키고 快適한 都市環境을 造成하므로서 文化生活을 營爲할 수 있게 하는 것은 現代的 中心課題가 아닐 수 없다.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自然및 歷史的 遺産마저도 損傷시키는 環境汚染의 實態를 把握하는 일과 人間定住地로서의 都市空間環境計劃을 都市計劃이나 國土計劃的인 次元에서 樹立해야 하는 環境關係專門家들의 役割이 重且大함을 새삼 强하게 느끼게 한다.

**三千里 錦繡江山을 健康한 모습으로**
**回復시켜 快適한 都市環境 造成하자**